모든 눈길은 십자가로 통한다

(마27:32-44)

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38.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든 눈길은 십자가로 통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패러디한 제목입니다.
'모든 눈길은 십자가로 통한다,'에서 눈길은 마음의 시선을 말합니다.
육체의 시력의 시선도 눈길이지만, '눈길을 끈다'고 할 때 주의나 마음의 관심거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간혹 TV를 통해 광고에서든 코미디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길 건너편으로 정말 멋진 여성이 걸어갑니다, 이때 이쪽 편에서 걷고 있던 한 젊은 청년이 그 아가씨를 보면서 넋이 빠져서 걷다가 앞에 있는 가로등을 못 보고 '띠~잉'하고 부딪히는 장면.

또 남자친구와 명동 같이 복잡한 길을 걷고 있는 중에 센세이셔널 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앞으로 지나간다, 이때 같이 가던 남자친구가 눈길을 줍니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꼬집든지 자기 손으로 남자친구의 눈을 가리든지 해서 눈길을 막습니다.

이런 눈길, 신앙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시선입니다.
신앙은 눈길을 주는 겁니다, 시선을 주는 게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만을 보면서 사는 것, 시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앙망한다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지구 위에 살면서 지구 위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시선을 주면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숨이 콱 막혀 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돈, 돈' 하잖아요? 속마음으로 돈만 바라보면서도 동창회에 갈 수도 있고, 직장생활 할 수도 있고, 가족을 대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는 아가씨가 온통 속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기 애인이면서도 직장에 나가서 타이핑 할 수 있고, 거래처에 심부름 갈 수도, 사장님이 시키는 커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사업할 수 있고, 장사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전혀 하나님을 안 보면서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숫자적인 부흥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유력한 교인을 바라보면서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마태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를 너무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35, 36절만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꼭 메인이벤트가 아닌 것 같아요.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간단하게 묘사되고 나서 37절부터 보면 두 번 반복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정말 메시아라면, 그래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자라면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또 희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정말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조국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자로서의 정치적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고, 내려와야 됩니다.
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자리는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인데도 안 내려오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눈길을 끌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원래 선민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선민이에요.
그 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눈길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마는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눈길을 주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계획의 완성이 십자가사건입니다.

이 지구 위에서 봐야 될 것이 많아요, 가족을 봅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친구를 이웃을 봐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사장님을 보고 돈을 봐야 되고, 건강을 봐야 되고, 내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학문을 해야 됩니다, 꿈을 꾸어야 되고,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말합니다, 이 지구 위에서 그 어떤 것을 봐도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보는 데에 실패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래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시고, 그곳에 매달려 죽으십니까?
눈길을 끄시려고…
그러므로 십자가사건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지구 위에서 허락되어진 유일한 눈길의 대상입니다, 원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구 위에서는 봐도 될 어떤 대상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눈길을 주어도 될 그 어떤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일어나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길을 주어도 되는 유일한 대상, 마음의 눈길이 허락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일어났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않으신 겁니다.

자, 주님이 마음의 눈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눈길은 십자가로 통합니다, 이 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려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마음의 눈길이 하나님만을 봐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이루어드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면 보이도록 일어난 십자가사건을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길은 십자가로 통한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럽연합보다도 더 큰 제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BC 3세기부터 도로를 만들기 시작하여 오백 년 간에 로마가도가 건설이 되는데, 그 로마가도는 로마에서 12갈래의 도로가 시작되면서 그 12갈래의 도로가 375개의 간선도로로 확장이 되고, 그것이 다시 실핏줄 같은 지선으로 뻗어나가는데, 북으로는 북해까지, 남으로는 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까지,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넘어 스페인 끝의 대서양까지 그 도로가 뻗어져나갑니다.
그래서 북유럽 스웨덴지역에서 자기 집 골목길에서부터 시작해 걷다보면 신작로가 나오고, 걷다 걷다보면 375개의 간선도로가 나오고, 그중 어느 하나를 타고 계속 걷다보면 12개의 로마국도 중의 하나로 올라서게 되고, 그 국도를 걷다보면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시선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보게 된 사업장의 일이 내 마음을 자극하게 됩니다.
드디어 내 마음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극되어 걷는다는 것은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이게 다 마음이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이 길이 십자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시선의 끝이 십자가로 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사업장에서 일어난 그 일을 다루어야 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듣고 자식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의도하고 뜻합니다, 계획합니다,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로 계속 가서는 안돼요,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선민이라면 반드시 오감관을 통하여 들어온 자극 때문에 마음에서 시작된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이 나야 됩니다.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모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육체의 오감각이라고 하는 국도를 통하여 마음으로 들어오는 재료들에 반응할 때,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먼저 십자가를 향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북해에서 로마로 단번에 날아올 수 있는 지름길, 마치 비행기 길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신앙이고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신앙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감관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마음에 주어지든지 간에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그래서 걷지 말고, 아니면 걷더라도 '아이쿠, 내가 이 길을 한없이 잘못 가고 있구나, 얼른 돌아가야지!' 해서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어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게 될 때라야만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오늘의 번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세상에서 내가 마음의 눈길을 주어야 되는 대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눈길이 뻗어나가, 뻗어나가서 십자가로 도착하자는 얘깁니다.
로마로 통하고 또 로마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마음의 시선을 주게 되고 눈길을 주게 됩니다, 이 눈길은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게 돼요.
이해하실지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의 끝이 십자가입니다.
이 얘기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의 완성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양자역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빛의 속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온전히 완벽하게 자기의 학문을 이루는 날이 있다면, 저 화전민촌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그 자리에 비로소 도달하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계의 석학들이 자기의 학문을 완성했을 때 비로소 그 할머니의 자리에 도달하든

지 아니면 자기는 완성이라고 생각했음에도 아직도 그 할머니가 도달하고 있는 지점에 못 도달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얘기에요.

불교를 불상에 절하는 우상숭배의 종교로 생각하지 말고 본래의 의도대로 깨달음의 사상과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팔만대장경을 요약하면 사성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집멸도(苦集滅道), 그 고집멸도 사성제를 완전히 체득한 사람이 도달한 그 지점을 화전민 할머니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고백하고 살게 되면 그 지점을 불교의 고승이 도달하고 완성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그 지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고승이 해탈해도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자가 말한 도가의 이상이 무위자연(無爲自然)입니다.
그 무위자연을 체득한 도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전민 할머니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할머니가 도달한 지점을 도달하지 못합니다.
공자의 이상이 군자(君子)입니다, 그러나 그 군자가 절대로 그 할머니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의 답이고 모든 것의 결론이고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가들의 고민의 해답이 이 십자가에 있고, 경제학자의 대답이 십자가에 있고, 그 대답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해답입니다.
이게 해답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100명을 모아놓은 것보다 경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면 십자가에서 돈에 대해 죽으세요!
자식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엄마와 아빠가 되려면 자식에서부터 출발한 마음의 눈길을 십자가에 와서 자식에 대해 죽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빠와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진정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돈에 대해서 죽는 자가 진정한 사업가가 되고, 권력에 대해서 죽는 자가 진정한 정치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있는 학문에 대해서 죽는 자가 진정한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

을 때.
그냥 자포자기해서 죽는 것,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 이 세상 모든 사건의 주인이신 하나님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내 자식이 문제라면, 내 자식 때문에 마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내 마음의 눈길을 십자가에서 끝내세요!
그리고 자식에 대해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 하나님 백 날 불러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놓쳐버렸어요.
십자가는 사순절에만 이야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음의 눈길은 십자가로 통하게 되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에 의해서 자극받게 되는 마음이 죽어버릴 때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선이 생겨나는데, 이제 그 시선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을 보는 시선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금 마음의 눈길이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마음의 눈길은 십자가로 집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다시 마음의 눈길이 뻗어나갈 때 그 마음의 눈길은 하나님의 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는 모든 마음의 눈길이 십자가로 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자극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 길을 걸어가야 되는 내 마음, 시선을 주어야 되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끝이 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길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